

나주시 관리 소홀에 흉물 된 문화유산

월정서원(향토문화유산 16호)

예산 부족에 천막 덮어놓은 채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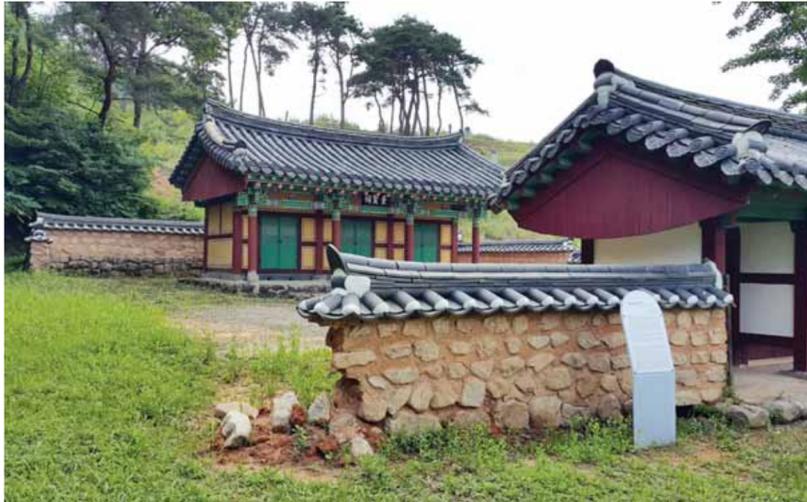
경현서원(향토문화유산 17호)

담장쌓다 중단... 깨진 유리창 그대로

지붕 무너진 소총사 보수 외면

문중-나주시는 책임 떠넘기기만

요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주기관 직원들을 위한 공연과 교양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우리 가락 열씨구' 공연, '빈센트 반 고흐 음악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는 지역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전기관들의 지역문화 바로알기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나주시 문화유산은 정작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월정서원과 경현서원, 소총사 등 관내 문화재 관리실태를 둘러봤다.



조선 대표 유학자 한훤당 김경필 선생 등 7위를 배향하는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경현서원. 지난 2010년부터 돌담쌓기 공사를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한쪽 면이 뚫려 있다.



지붕 절반이 내려앉은 소총사 전사청(典祠廳).



건물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 놓은 월정서원.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경현서원.

찬 준비를 하는 건물) 기와 지붕의 절반이 내려앉은 지 오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폐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영정이 모셔져 있는 소총사 사당 기와지붕 일부도 무너진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채 문중과 나주시가 보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나대용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공원은 인공호수물이 썩어 급잉어가 죽어 떠다니고 집초만 무성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소총사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문중이나 나대용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보수·관리해야 맞다"며 "시에서는 문화재 관리 예산이 한계가 있어 현재는 소총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쓰러져 가는 소총사 건물을 보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총사는 해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이면 '제암 나대용 장군 추모식'이 열려 외부에서 주요 인사가 찾는 나주의 주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0년 8번째 건조된 집수함 '나대용함' 승조원들이 해마다 소총사를 찾아 나대용 장군 동상에 헌화 분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소총사에서 제암 나대용 장군의 탄신 403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시민 김모(나주 송월동)씨는 "나주지역에는 고분군을 비롯해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며 "옛 문화와 혁신도시의 현대문화가 잘 조화된 멋스럽고 수준 높은 나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대용장군 기념사업회는 과학관, 방죽골 한옥 마을을 조성해 관광 단지화할 계획이지만 국비확보를 못한 상태이다. /나주=글·사진 손영철기자 yacson@

'시민 소통 원탁회의' 150명 참여 열띤 토론

'소통 행정'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민선 6기 나주시가 지난 15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한 이번 원탁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나주시 행정에서부터 나주배 포장재 통일,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여러 유형의 소통방제 사례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 원탁회의는 7~8명이 한 조를 이뤄 원탁별로 모든 참여자가 빠짐없이 발언에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시는 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지난 4~11일 전화나 읍·면·동사무소, SNS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참가자 중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 토론진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인규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소통수준을 진단하고, 소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격의없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토론으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7월중에 70여명의 다양한 시민들로 '시민소통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2일부터 3주 연속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소통교육 강좌를 마련, 소통역량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전지혜 명창 3시간30분동안 동편제 '수궁가' 완창

지난해 구례 '동편제소리축제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에서 대통령령을 수상한 명창 전지혜(32·전남 도립국악단원) 씨가 지난 15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강도근 바디 동편제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3시간 30여분에 걸쳐 선보인 수궁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고 강도근 명창의 소리법통을 이어받은 정동 동편제소리이다. 송만갑-강도근-이난초-전지혜로 이어지는 뚜렷한 계보를 가진

귀한 소리로, 대마디 장단의 굽고 웅장한 음악적 구성이 돋보인다. 전씨는 이난초 명창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를 사사해 자신의 본고로 여겨며 동편제 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나주=정철희기자 chung@

'6월 명예시장' 박형석씨 시정 청취·현장방문 활동

나주시 '6월 명예시장'에 위촉된 박형석(60·나주시 중앙동)씨는 지난 16일 시청 현황과 부서업무를 청취한데 이어 후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박 명예시장은 16일 오전 강인규 나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역사도시사업단과 농업정책과, 경제교통과를 돌며 업무를 청취한 뒤 오후에는 혁신도시 조성 현장과 U-City 통합 관제

센터를 둘러봤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신용상태 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건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저자에게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